

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다면 아버지 살았겠죠”... 한익스프레스 참사 1주기

✎ 조연주 기자 | © 승인 2021.04.26 14:15

**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 유족 김지현 씨
“공사 결정권 있는 원청에 참사 책임 없다면, 누구에게 있나”**

“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예요”

김지현 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, 아직도 어디선가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. 집에 머무는 기간보다 이곳저곳의 건설현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다 보니,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.

김지현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을 거뒀다. 김 씨는 다음날 집에 올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물류창고 화재 소식을 들었다. 김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못했다. 매일 아침마다 손수 세 자매의 교복을 다리던 다정한 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.



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익스프레스 본사(건축사회관)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. © 송승현 기자

그날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는 김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38명이 숨졌다.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,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,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 하청업체 운영자와 시공사에는 벌금형이 내렸을 뿐이다.

김 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왜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없는건지, 누가 이런 참사를 만든건지, 누가 아버지를 죽인건지 생각한다. 하지만 아버지가 화재로 황망히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

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희생자 유족인 김지현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. © 송승현 기자

김지현 씨는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익스프레스 본사(건축사회관) 앞에서 주최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.

김 씨는 “아버지를 죽인 사고는 2008년 40명이 사망했던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판박이었다. 그 당시 원청과 발주처를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더라면,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셨을 것”이라며 울먹였다.

김 씨 또, “우리 유족들은 그날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.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‘죄송하다’는 말은 오로지 판사를 염두에 둔 사과였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재판 당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그날 사고 전말에 대해 기억이 없고 몰라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. 다른 관계자도 책임이 없으며 항소했다고 한다. 공사 결정권한 있는 사람이 책임 없다면 누가 이 죽음을 책임질 수 있는가”고 반문했다.



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희생자 유족 김지현씨가 시민분향소 위에 국화꽃을 올리며 추모하고 있다. © 송승현 기자



조연주 기자 nojojogirl@gmail.com